

< 성전보수 기금마련을 위한 기도 >

주님,
 우리 공동체와 함께하시며,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
 하늘의 사랑과 은총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저희는 낙후된 성전을 위해,
 기도와 정성을 모아,
 성전 보수 기금 마련을 준비합니다.
 저희의 계획과 수고가,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서로 사랑으로 협력하며,
 이 길을 함께 걷게 하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주님께 의지하게 하소서.
 고단한 이민의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안의 평안으로,
 이끌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작은 정성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금을 통하여 더 많은 이들이,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하소서.
 저희의 정성이 모여,
 다음 세대에게도,
 믿음의 보금자리를 물려줄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령 강림 대축일

2025년
6월 8일

미사 시간 안내

평 일 (영어미사)
 화요일-7:00 PM
 수~금-9:00 AM
 화-금 미사전 목주기도
 주일(한국어/영어 미사)
 토(특전/영어)-4:00PM
 일요일(영어)-9:00AM
 (한국어)-11:30AM
 고해성사-11:10AM

사무실 안내

주소: 122 High Street
 South Bound Brook,
 NJ 08880

#Tel : 732-356-1037
 #Email: edisonkcc@gmail.com
 근무시간: 수~금
 (10:30AM~4:30PM)

에디슨한인천주교회

주임신부
 이용범 사도요한

본당부제
 오현주 요한

은퇴/종신부제
 최승웅 미카엘
 윤석로 이냐시오

평협회장
 엄기선 베드로



에디슨한인천주교회

OUR LADY OF MERCY PARISH



< 이번 주 전례안내 >

제 1독서 사도행전 2,1-11

화답송 시편 104(103),1ㄱ과 24ㄱ,29ㄴ-30,31과 34(© 30 참조)



후렴. 주님, 당신 숨을 보내시어, 온누리의 얼굴을 새롭게 하소서.

제 2독서 코린토 1서 12,3ㄴ-7.12-13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오소서, 성령님. 믿는 이들의 마음을 성령으로 가득 채우시어 그들 안에 사랑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 알렐루야.

복음 요한 20,19-23

성가 입당 147 봉헌 210, 342 성체 165, 175 파견 142

- * 미사지향 (연미사)**
 - 김명자(헬레나) - 가족
 - 김진철(요한) - 가족
 - 오석건(안토니오) - 가족
 - 이금자(비비안) - 김 스텔라
 - 윤재은(베로니카) - 가족
 - 박순만(마리아) - 가족
 - 모든 아기들의 영혼 - 가족
 - 오용덕(헨리코) - Raphael & Catherine

- * 미사지향 (생미사)**
 - 윤이나시오(부제) 윤안젤라 - 오요한, 채희백(바오로)가족 허야나스타시아
 - 오요한 부제 - 박재영(요아킴) 김영은(안젤라)

- 김수완 & 찰스 허정(아나스타시아) - 김영은(안젤라)
- 염은미(글라라) - 가족
- 김영필(안토니오) - 가족
- 조정혜(릿따) - 가족
- 서정근(안셀모) 서용숙(루시아) - 허야나스타시아
- 신준교 신건하(아나다시아) - 성마카엘라
- 신건우(세레자 요한) - 성마카엘라
- 주일학교 선생님들과 TA. 에디슨 한인성당 교우분들
- 심 바오로 형제님 - 자모회
- 김정임(데레사) - 가족
- 김나현 김시원 - 김정연(엘리사벳)
- 박정화(요셉) - 박재영(요아킴)
- 박덕화(요안나) - 황태진(필립보)
- 김순옥(율리아) - 오요한
- 곽율리안나 - 이희숙(데레사)
- 전옥주(글라라) - 성령기도회
- 2025 성령대회를 위하여

- *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 6/1 주일헌금.....\$904(114명)
 - 6/1 2차헌금.....\$214
 - 감사헌금.....\$100(서범석)
 - 교무금.....\$1,900
 - 민규란(7~12) 우영인(5~6) 손흥구(4~6) 박정숙(7~9) 최영옥(6) 허정(6) 임성주(5) 이보현(6) 홍인선(6) 박병태(6)

*** 새로오신분, 방문해주신분, 오랜만에 오신 교우를 환영합니다.**

*** 원할한 주보 제작을 위해 미사 지향 신청 및 주보 공지 사항을 매주 수요일로 마감합니다.**

*** 성당(채플)은 성체가 모셔져 있으며 기도하는 곳입니다.**

- * 모든 친교 후 청소 철저**
 - 모든 쓰레기통은 비우고 새 비닐백으로 쥘워주세요.
 - 재활용통에 쓰레기를 버리지 마세요.
 - 재활용 통에는 병, 캔, 깨끗한 종이 만 넣어주세요.
 - 바닥 청소
 - 마지막 퇴소자는 소등 및 문단속 확인 바랍니다.
 - 성당안의 가전제품이나 큰가구를 버릴시에는 반드시 사무실에 미리 상의해주세요.

- * 환우들의 빠른 회복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 하건철(안토니오) 김영필(안토니오) 염은미(글라라)
 - 곽 율리안나 김삼식(베드로)

- * 2차 헌금 (6월15일):** 유틸리티
- * 성전 보수기금 현황:**
 - 약정 금액 \$16,100/ \$300,000 (5.37%)
 - 납부 금액 \$9,200/\$300,000 (3.1%)
- * 6월 빵과 포도주 봉헌**
 - 6월8일 서현주 김정연 6월15일 고명진 고병준
 - 6월22일 한상철 한종매 6월29일 김태경 유미선

- * 친교 봉사 일정**
 - 6/15 사우스브런스윅 7/20 썸머셋 8/17 에디슨
 - 9/21 올드브릿지 10/19 이스트 브런스윅 11/16 피스브릿지
 - 12/21 노스브런스윅 1/18 릿거스 2/15 먼로
 - 3/15 메타천+노스에디슨

- *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장소: 6월8일(주일) / 미사후 친교회의실

- * 신부님 줌 강의**
 - 6월 10일 (화요일) 저녁 8시15분 (ID: 756-510-9424, PW: 1234)

- * 야고보회 모임**
 - 일시/장소 : 6월14일(토요일) 1시 / 친교실

- * 6/15 주일미사는 이튼성당 장재명 신부님께서 집전해 주실 예정입니다.**

- * 올드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장소: 6월15일(주일) / 예비자 교리실

- * 피스브릿지 구역모임**
 - 일시/장소: 6월15일(주일) / 예비자 교리실

- * 이나시오 영성 2박3일 침묵피정**
 - 시간: 6월20일(금) - 6월22(일)
 - 장소: Loyola Jesuit Center, Morristown, NJ
 - 주최: 뉴욕 그리스도인 생활 공동체 (NYKCLC)
 - 피정비: \$375 (신청 마감: 6월 7일)
 - 피정문의: 조현실 테오도라 732-865-1550

- * 2025 미동북부 성령대회**
 - 일시: 2025년 7월 19일 (토) - 20일 (주일)
 - 장소: 펠리시안 칼리지, Lodi, NJ
 - 참가비: \$40/일인 (2끼 식사 포함)
 - 티켓 및 문의: 김종화 야가다 (회장) 732-379-2460
 - 임문수 마르코 (봉사자) 201-600-8717

- * Shiloh Camp**
 - 시간/장소 : 7/29 ~ 7/31 / Hewitt in NJ, 대상 : 14 ~ 17살 청년
 - 문의/신청마감일: email quovadis@diometuchen.org / 6월30일

- * 2025 Bishop's Annual Appeal**
 - 메타천 교구내 사목, 교육,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2025 Bishop's Annual Appeal에 많은 성원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5년 본당 목표금액은 \$39,000입니다. 목표금액 달성시 초과금의 50%는 본당으로 귀속됩니다. 지난주까지 약정된 금액은 \$38,416.60 (목표금액의 98.5%)입니다.

>>> 우측으로 공지사항 계속

*** 제 1독서 사도행전 2,1-11**
 오순절이 되었을 때 사도들은 모두 한자리에 모여 있었다. 그런데 갑자기 하늘에서 거센 바람이 부는 듯한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는 온 집 안을 가득 채웠다. 그리고 불꽃 모양의 혀들이 나타나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내려앉았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성령으로 가득 차, 성령께서 표현의 능력을 주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세계 모든 나라에서 온 독실한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그 말소리가 나자 무리를 지어 몰려왔다. 그리고 제자들이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지방 말로 듣고 어리둥절해하였다. 그들은 놀라워하고 신기하게 여기며 말하였다. "지금 말하고 있는 저들은 모두 갈릴래아 사람들이 아닌가? 그런데 우리가 저마다 자기가 태어난 지방 말로 듣고 있으니 어찌 된 일인가? 파르티아 사람, 메디아 사람, 엘람 사람, 또 메소포타미아와 유다와 카파도키아와 폰토스와 아시아 주민, 프리기아와 팜필리아와 이집트 주민, 키레네 부근 리비아의 여러 지방 주민, 여기에 머무르는 로마인, 유대인과 유다교로 개종한 이들, 그리고 크레타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인 우리가 저들이 하나님의 위업을 말하는 것을 저마다 자기 언어로 듣고 있지 않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 제 2독서 코린토 1서 12,3c -7.12-13**
 형제 여러분, 성령에 힘입지 않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은 주님이시다." 할 수 없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지만 성령은 같은 성령이십니다. 직분은 여러 가지지만 주님은 같은 주님이십니다. 활동은 여러 가지지만 모든 사람 안에서 모든 활동을 일으키시는 분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공동선을 위하여 성령을 드러내 보여 주십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몸의 지체는 많지만 모두 한 몸인 것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러하십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종이든 자유인이든 모두 한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습니다. 또 모두 한 성령을 받아 마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하나님, 감사합니다.

*** 복음 요한 20,19-23**
 그날 곧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시어 가운데에 서시며, "평화가 너희와 함께!" 하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당신의 두 손과 옆구리를 그들에게 보여 주셨다. 제자들은 주님을 뵈고 기뻐하였다.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셨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이렇게 이르시고 나서 그들에게 숨을 불어넣으며 말씀하셨다. "성령을 받아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해 주면 그가 용서를 받을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 좌측에서 공지사항 계속

*** 첫영성체:** 오늘 미사중에 김나현 스텔라 김시원 안드레아의 첫영성체식이 있겠습니다.

*** 성모회에서 테네시 농작물 주문 받습니다. (담당자: 최정원 레지나, 마감일: 6월22일)**

*** 자모회 주일학교 종강맞이 감사인사:**
 한 해 동안 주일학교를 위해 기도해주시고,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모든 신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교우분들의 따뜻한 나눔과 사랑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여러분의 가정에 늘 함께하시길 기도드립니다.

〈 부활삼중기도 〉

- 하늘의 모후님, 기뻐하소서. 알렐루야.
- 태중에 모시던 아드님께서, 알렐루야.
-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저희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알렐루야.
- 동정 마리아님,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소서. 알렐루야.
- 주님께서 참으로 부활하셨나이다. 알렐루야.
- † 기도합니다.
- 하느님,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온 세상을 기쁘게 하셨으니 성자의 어머니 동정 마리아의 도움으로 영생의 즐거움을 얻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 아멘.

〈 예수 성심 성월 〉

- 예수 성심께 천하 만민을 바치는 기도
 - 지극히 어지신 구세주 예수님, 주님 앞에 꿇어 경배하오니 저희를 굽어살피소서.
 - 저희는 이미 주님의 백성이오니 언제나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바라나이다. 주님과 하나 되고자
 - 오늘 저희를 주님의 성심께 봉헌하나이다.
- 주님을 일찍이 알아 모시지 못한 사람도 많고 주님을 알고도 주님의 계명을 저버리고 주님을 떠난 사람도 많사오니
 - 지극히 인자하신 예수님, 이런 사람들도 다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성심께 이끌어 들이소서.
 - 주님께서서는 목자이시니 주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들을 보살피시고 이미 주님을 떠난 사람들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어 굽어 죽는 일이 없게 하소서.
 - 웅졸한 고집에 사로잡힌 사람들이나 불목하여 갈린 사람들도 부르시어 저희가 모두 같은 신앙을 고백하며 한 우리에서 한 목자 밑에 살게 하소서.
 - 주님, 거룩한 교회를 평화의 깃발로 세우시고 모든 나라에 참된 평화를 주시어 온 세상 어디서나 입을 모아 저희를 구원하신 거룩하신 성심께 영원히 찬미와 영광과 흠숭을 드리게 하소서. ◎ 아멘.
 - 예수 성심,
 - 이 세상에 주님의 나라를 세우소서.